【日刊】 【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三年四月十九日 【木曜日】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第二千七百三十九號 【一】

朝鮮日報

本紙六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金炯元
朝鮮日報社

社說

不戰條約의矛盾

一

北米合衆國大統領이 英獨佛伊日等世界五大列强에 對하야 昨年六月頃부터物議가紛紛하든 이른바不戰條約의締結을正式으로提議하엿다 그趣旨는勿論人類의福利를增進하고國際間에友誼的關係를永久히存續식히며戰爭이란不合理한制度를廢棄하고平和的手段으로解決하고자함이 國際間에이러나는 모든爭議를 三個條로成立된것이니 첫재는各自締約國이 自國民의名義로國際間爭議의解決을 戰爭에訴함을非로認定하고『締約國相互關係에對하야 國家政策遂行의手段으로서의戰爭을廢棄함을聲明』할것이요 둘재는 各締約國間에發生하는 모든紛爭에그性質과原因의如何를不問하고반드시平和的手段으로 解決할것을約束할것 셋재는批准과效力發生에對한形式的規定과締約國以外의他國도追後로自由參加할수잇다는것이 包含되엿다

二

이러한『多邊的條約』이 一二個가아니다 爲先國際聯盟의規約이그하나이며 『로카르노』保障條約이또그하나이며 國際裁判條約이一種의不戰條約이며 그밧게도無數한不戰條約과不戰宣言이아직도各國外務省文庫에먼지속에나마存在한것은事實이다 그러함에不拘하고 새로히不戰條約을締結할必要가생긴것은 前의許多한不戰條約이無用에歸한것을다시한번 證據하는것이다 旣成條約이無用에歸한것은結局條約上要求에服從하지아니하고履行치안는境遇에罰則을行使할第三權力이업는外닭이다 只今外지의國際條約은强國이弱國을强迫하는手段에不過하엿다 그래서設令今番에提議된不戰條約이成立된다하드래도 條約違反國을懲罰할第三權力이 누구인지가問題이며自國의利害關係를全혀超越하여서 莫大한財産과莫重한生命을犧牲에供하면서라도 不戰條約의 權威만을爲하야 條約違反國을 懲罰할만큼 理想에醉한 國家의團體가 생기기前에는 結局今番의新不戰條約도 旣成條約과가티 無力하게될것은우리의 豫測을기다리지안흘것이다 그리고또한가지重大한問題는 이不戰條約에全世界모든國家가參加하기前에는非條約國이 條約國中一員을攻擊하야正當防衛의問題가發生할境遇가잇슬것이오 現代國際關係와가티가장複雜한모든境遇를網羅하야어대서어대까지가正當防衛오어대서어대까지가侵略行爲라는것을一一히規定하기는거진不可能한일이겟다 이러케實現不可能性이薄弱한條約을너무焦急하게도倫敦과巴里 伯林과羅馬甚至於東京外지奔走하면서各外務省에强勸하다십히하는것은畢竟 米國內에서臨迫한總選擧에한자랑거리를내어놋코자함이그眞正한目的이아닐가

三

設令이條約의實際的效果는안생긴다할지라도적어도『精神上效果』는만흘것을『클릿지』大統領이豫想하는것갓다果然以上의六大强國이誠心으로國際問題를民衆의要求에依하야 平和的으로解決코자한다면 現在制度아래서그實現可能은問題될는지모르나 적어도精神敎育的價値는잇슬것이다 그러나이러한誠心이잇기도하거니와 設令잇다하드래도 現存制度가 變革되여國際關係도根本的으로 革新되지안코는그誠心의效果가別無할것이다

四

一時人間社會를 聳動식히든『윌손』大統領의十四個條보다조곰도遜色이업는消極的理想主義가 이不戰條約에도包含안된것이아니것만 두번세번속을리도만무하거니와 米國의世界平和에對하는誠意가問題되고또問題되어서 只今은그有無外지의심하게되엇다 軍縮會議의開催를力說하면서 한편으로海軍設備擴張에熱中하는것이米國이엇고今番에도이不戰條約을全世界에提議하면서 華盛頓에서는海軍大臣『윌버』氏가莫大한海軍擴張案을下院에提出하엿스며 陸軍大臣『웨비스』氏는下院에서銃器와其他軍需品輸出禁止案에對하야 極力으로反對하면서『만일軍需品輸出이禁止되면小銃과短銃은勿論이요大砲 탱크 毒瓦斯等의製造業은滅亡에빠질것이오 그結果로한번有事할境遇에米國의戰鬪準備는迅速히되지못하게되어서國家를危境에빠지게할念慮가잇다』고자못露骨的으로軍需品製造業者의利益을擁護하며 戰爭準備의必要를自白하엿다 그뿐아니라國務卿『켈럭』氏는『쥬네브』軍縮會議에出席할米國代表에게特電하고潛水艇廢止案을極力으로反對하엿다 이러한米國으로不戰條約을提議함은 矛盾이이보다더할수잇슬것인가

五

그러나 이矛盾이반드시偶然的或은故意的이아닌것을우리가이저서는안된다 米國인들엇지이러한矛盾的行爲를故意로하고 십허서하겟는가 現代社會組織과써러서米國의社會組織에이러한矛盾이內在的으로包含되어서 避하고십허도避할수업는矛盾이여긔서必然的으로暴露되는것이다 한편으로原料品爭取와 剩餘資本의 輸出等에關하야 現代國際關係에서必然的으로發生하는無法的戰爭은猛烈한戰爭準備를날로더욱굿기게하고 다른편으로는戰爭을因하야莫大한生命과財産을虛費하는同時에國內에서階級的勢力의均衡을일케되어서 무슨方法으로든지戰爭을避하여야만하는것이다 그래서軍費를縮少하고不戰條約의締結이事實上必要한것만寡頭金融資本制度와製造業集中制度는 必然的으로國家를戰爭의渦中으로驅逐하는것이니 여긔不戰條約의矛盾이그집흔뿌리를둔것이다

盟休가나서 大學이廢鎖돼도
左傾敎授는斷然處置

（東京電） 政府에서는今回의共産黨事件에關聯하야左傾敎授를徹底的으로一掃하려고文部當局과意見이一致되엇는데이에對하야各大學에서는大學內의自治學問硏究의自由、學園의神聖이라는關係上이와가튼當局의處置에는反對하는態度에出하야萬若當局이所謂左傾敎授에게對하야斷然한處置를取할때에는大學의敎授는一蓮托生으로盟休의擧에出할지도未知인現狀에잇는데政府에서는萬若敎授等이이와가튼擧動에出할時는廢校를하여도不得已한일이라고斷然한處斷을敢行할方針이더라

學生處分은十八九日 敎授處分은二十日頃

（東京電） 政府는共産黨事件에關係한學生及思想團體의處分은十八、九日頃에하고敎授、助敎授等의處分은二十日頃에發表할터로共産黨員學生을내인東京、京都、東北、九州의各帝大總長은譴責處分에附하게될터이라더라

新人會自發的解散

（東京電） 東京帝大新人會의處分에對하야는 共産黨事件發表以來文部省當局에서種種審議를거듭하여오든바十七日正午에自發的으로解散하기로決定하엿는데小野塚帝大總長代理는十七日午後一時文部省에新人會에解散을命한旨를報告하엿더라

東北大學과二高 兩敎職員과同取調

（仙台電） 東北大學과二高學生十九名은數日前부터仙台警察署에서取調를밧는中으로社會科學硏究會의內容에關連함인듯한데二、三의敎職員도取調를바덧더라

新人會同樣團體는모다解散

（東京電） 文部省에서는東大新人會에解散命令을發하는同時에全國各大學에在한新人會同樣의團體에對하야서도解散命令을發할意嚮이더라

『京大三生 無期停學』

（東京電） 荒木京大總長은十七日午前東京으로부터歸洛한후 書記官、設庭事務官等을總長室에모흐고鳩首協議後京都地方裁判所檢事局特高課等으로부터共産黨事件에關係한學生의取調模樣을質問한結果河上博士의辭職을機會로一擧에左傾學生의處分을斷行하기로決定하고同夜에緊急懲罰委員會를召集後爲先三名의學生을無期停學處分에附하기로되엇더라

七人敎授가一時辭職

（東京電） 共産黨事件勃發에關聯하야左傾敎授의進退問題는매우注目되는데京大의河上博士가爲先辭任하고東大의大森助敎授、東北帝大法文學部鈴木義男敎授도辭職을決定한外에九州帝大에는法文學部石濱佐佐、向坂三敎授와山之內休職敎授도辭職할模樣으로現任休職共히六名의敎授가辭職하게되엇더라

大森助敎授도 辭表提出

（東京電） 左傾으로觀測되는東大經濟學部大森義太郞助敎授는十七日午後드듸어總長代理에게辭表를提出하엿다더라

京大總長東京行

（東京電） 十七日午後八時부...

左傾處分蔓延化 高校私大各專門까지

（東京電） 東京帝大經濟學部敎授大森義太郞氏는辭表를提出하엿더라 左傾敎授及左傾團體處分에對하야帝大關係는圓滿히進捗中인데文部省은다시高等學校方面에도處分하기로되어十六日丸山平南小松六高兩校長을招致하고指示後全般的으로取締하기로되엇는데繼續하야私立各大學專門學校에對하야서도同樣으로廓淸할方針이더라

◇處分斷行을 閣議에報告◇

（東京電） 左傾敎授 社會科學硏究會處分에對하야水野文相은十七日閣議에서各大學과의交涉經過 大學當局의方針에對하야詳細한報告를하엿는데其要旨는左와如하더라
一、社會科學硏究團體는十八、九日中에各大學總長으로부터解散을命할터이다
一、左傾敎授處分은各大學總長에게一任하엿는데一部는十八...

政局의最後決定權 明政會六代議士가把握

（東京電） 特別議會召集을直前에두고議場의確定分野는十八日現在로보면左와如하다

政友會	二百二十名		
民政黨	二百十八名		
明政會	六名	革新	三名
實同	三名	無產	八名
無所屬	七名	欠員	一名

그런데右에依하야民政黨의內閣不信任案贊否者數를議究하면

◇贊成 民政二百十八名 革新三名 無產八名 計二百二十九名
◇反對 政友二百二十名 無所屬五名(尾崎、長島、堤、權野、守屋) 計二百二十五名

으로大體의區分을할수잇스나右는田淵、大內兩無所屬을乘權으로보고藥澤이게되리라고도하는데新의一名을乘하지안트라도明政會의六名이最後의決定權을가진實勢이더라 對한行動에對하야觸耐을맛지안흘가或은自己들을除名하겟다고民政黨某最高幹部에서表明한者도잇는外에病으로出席不能한者가三名或은五名이잇슬으로외에基本數는贊否全혀相半하는情勢로結局政黨數決定에除外된明政會의六名이最後의決定權을가진實勢이더라

獨逸共產團體 解散命令發布

（伯林十七日發） 獨逸政府는十七日共產黨團體赤色前線鬪士』에게解散을命하엿더라

南軍追擊益猛烈
山東全部包圍狀態
戰線形勢는山東軍이大不利

（東京電） 外務省着電에依하면津浦線의南軍은江蘇省으로부터山東省에進出하야右翼은州로부터靑口鎭을占領한後付近에逼迫하고申路는十三日臨城을占領한後滕縣으로進함으로張宗昌氏는總司令部를兗州로退却시키엇는데南軍의追擊이急함으로이제는泰安의險을據하야濟南을守하려고하며左翼은鄆城 鉅野金鄕線을占領하고濟寧에逼迫하야南軍은全혀山東을包圍한狀態로全線의戰況은益益山東軍에게不利하게되는中이더라

馮軍彰德奪還

（北京十七日發） 京漢線彰德은一時奉軍의手에歸하엿스나有力한馮軍의後續部隊가到着하야激戰한後馮軍은完全히同地를奪回하야現在戰線은彰德과漳河와의間에잇는데奉軍은漳河右岸에背水의陣을敗하고第二十、二十九、十一各軍等後援部隊의來着을기다려攻勢에移할려고同方面에서近近激戰이잇슬模樣이더라

馮軍濟寧占領

（南京十七日發） 馮軍第一方面軍總指揮孫良正軍은十六日完全히濟寧을占領하엿슴으로山東軍은兗州에退却하엿더라

山東軍勢大不振

（東京電） 天津十七日發某所着電에依하면濟寧西北方鄆城附近에在한山東軍第二十三軍은軍의名稱을使用할實力이잇는者는不利하게되는中이더라

張宗昌大狼狽 濟南은放棄하고 德州에退却할생각

（南京十七日發） 津浦線으로부터北上中인南京軍의一隊는近日의路를取하야이미泗水에達하엿슴으로張宗昌氏는十五日臨城으로부터濟南에歸하야緊急會議를開하고重要書類財貨品等을天津으로移하기로決하엿다하며또張宗昌氏는濟南을放棄하고德州를守할意思인데北軍의사이에는大狼狽의色이잇더라

長春滯留吉軍 陸路南行終了

（長春十七日發） 滿鐵에서輸送을拒絶한長春滯留의中國軍隊는十七日全部陸路로南行하엿더라

（北京十七日發） 韓莊臨城의戰에不幸의慘敗를當한張宗昌氏는一時兗州外지退却하엿스나다시南軍擊破를決心하고十四日에精兵五千을引率하고自身이先頭에서서南下하야臨城에逼迫하는部隊에게懸賞을附하엿다바하는데意氣를내어十五日未明어렵지안케臨城을奪回하엿는바目下山東...

山東에또出兵 即時로實行할模樣

（東京電） 山東方面의戰況은進展하야山東居留民의危險이迫到되엇다는情報에軍部는保護手段을十八日夕刻까지에考究하야直時實行에着手할模樣인바아마日本으로부터出兵할듯하다더라

山東居留民 保護策協議

（東京電） 山東方面의戰況進展으로膠濟鐵路沿線方面의危險이迫到되엇다는情報에日本居留民을保護할方針에關하야十七日定例閣議를열기前에鈴木參謀總長과會見하고萬一의際에日本...

張學良飛機購入

（奉天十八日發） 北京政府와佛國商社와의間에契約이成立되어張學良氏는『포페』飛行機（四五...

列車大衝突로 死亡이八十名

山海關附近

（奉天十七日發） 十六日午後三時半에山海關附近에서京奉線列車가衝突되어苦力八十名이死亡하고負傷者多數가잇섯는데外人의被害는업섯더라

○馬力一萬三萬五千圓（二十臺를購入하기로되엇는데右飛行機는近近奉天東北陸軍航空學校에到達할터이더라

出動部隊考慮中

（東京電） 參謀本部는及其山東에出兵을斷行하기로決定한때에遺憾이업도록하기爲하야出動部隊選定에對하야는此際其他의關係上能本、廣島兩師團外、久留米第十二師團도加하야硏究中이더라

出兵하게되면 理由聲明

（東京電） 中國戰況이畢竟危...

北京城大戒嚴 大學其他에檢擧開始

（北京十七日發） 北京의反戰運動의獨立的運動은北京大學其他各大學內에서檢擧하야...

排日態度己現 山東出兵說을듯고

（上海十七日發） 山東出兵說이...

明政代議士會

（東京電） 明政會는十七日夜日本俱樂部에서代議士會를開하고出崎、鶴見、小山、椎尾、藤原氏等이出席하야
一、無產黨提携인野黨聯合協議會에는贊否를成立식히지안엇슴으로出席치안키로함
一、議長候補者는安部磯雄氏를十八日午前八時小山、藤原兩氏가訪問하고意見을交換할事
一、十八日午後二時부터落選中立候補者諸氏와會見할事
를決定하고綱領政策에對하야는十八日午後三時부터다시協議決定하기로되엇더라

日中에依願免本官、或은休職處分限令에據하야發表하겟고其他二十九、二十日附日中으로全部處分은政府는以上의敎授處分은二十日定例閣議에서形式上決定할터이다
一、左傾敎授處分은大體東大一 京大三 東北大一 九大二이될터이다
一、또한某側에서今回의處分問題에對하야文部當局과各大學間에意見의相違가잇다고傳하엿스나그런事實은斷然업다
또한東北大學의敎授이라는者는法文學部敎授鈴木義男氏로서小川總長의勸告로十七日에辭表를提出할터인데明十八日河上京東敎授와同時에辭令으로發表될터이다

車輛問題 無事解決

（北京十七日發） 奉天側의讓步에依하야芳澤公使가요구한奉海線鐵路管理協定의即時復活
一、奉海線鐵道局에서京奉線으로부터返還시킨車輛의全部를承認
一、流用車輛返還을全部承認하고洮昂線局長에게車輛返還을電命하야問題는此處에平和的으로解決을告하엿더라

今後方針協議 森次官과 生田、淺利兩氏

（東京電） 外務省에서는議會가切迫하엿슴으로十六日午前十時朝鮮總督府生田內務局長、淺利警務局長、三浦外事課長、關東廳神田內務局長을招致하고外務省側으로부터森次官、有田亞細亞局長等이出席하야各所管事項最近의狀況을詳細히聽取하고今後의方針에對하야協議한바가잇섯더라

專檢合格效力 各地共通

從來朝鮮에서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에依한試驗檢定으로一科目又는數科目에對하야試驗免除를受한者가日本의當該檢定試驗을受할때에그効力을認定케되지못한外에日本內地에서受驗한者에게는適用되지못하야不便이잇섯는바今般文部省에서는今後試驗科目을免除하는効力을相互共通하야同一히認定하기로決定하고四月一日부터文部省令으로日本、朝鮮、台灣、樺太、關東廳의當該試驗의科目合格은모다共通하야그効力을認定케되는것이더라

八面錄

中國의戰局은、더욱擴大되어山東을휩쓸고휘지는다고、日本의出兵이업서야만돌아지지
○
南中國에서는、벌서排日態度가보인다고、귀가먹지안흔以上에는日本出兵說을드릿겟지
○
議會前途에、政局左右는明政會에달리엇다고、政民兩側에서는입이다니기에、두팔이를...
○
그러고보니하잘것업서도、所謂大政黨의勝敗가、六代議士의向背에잇단말이지
○
地價는改正한다면서、稅率은올리지안는다니、그럴수가잇슬까

槿域三千里의名産 一堂에陳列한壯觀!

空前大바사는今日!

【전조선명산을한방안에모아노코보는 전에못보든대바사회는오늘부터연다】

오래동안두고 기다리고 기다리든 전조선 물산장려(全朝鮮物産獎勵)바사대회는 드듸어오늘로써 첫막을 열게되엿다 ‖ 기나긴 력사의찬란한문화(文化)가남겨노흔우리의고유한물산을다시부흥시키어길이후세에까지계승케하는 다른한편그것으로써 시시각각으로 파멸의 구렁으로만빠저들어가는우리의군색한경제를 조곰이라도 윤택하게 만들라는아름다운뜻으로써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의 주최알에 조선물산 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의협찬과 본사의후원으로십구일부터삼일간시내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鍾路中央基督敎靑年會館)에서 개최될 조선물산 장려바사대회는 드듸어금일로써 그의첫막을열게되엇는바금번바사대회는두보한바 와가티 전조선각디의명산(名産)을 모조리 망라한 그만큼실로조선에잇서서 일즉이보지못하든획시긔뎍의의잇는(劃時期的有意義)한큰바사로서 접차로 비등하는 각디의비상한인긔에 빗춰어보아 바사대회당일의 권시의비상한인긔는 지금부터 예상키 어렵지안흔바 반인사는 대회장내가 혼잡하야지기전에 될수잇는대로 썰리와서 수백수천의근역삼천리(槿域三千里)의특유한물산이한데집합하야다각기천자만홍(千紫萬紅)의고유한 유래와 특장을자랑하는력사뎍일대장관(歷史的一大壯觀)을참관키를바란다더라

興味津津한 優良品商店投票

본지긔재의투표용지리용 一等當選은어느商店?

십구일부터삼일간 시내종로중앙긔독교 청년회관에서 개최될 권조선물산장려 빠사대회에대하야 주최자측인 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에서는 일반입장자로하야금대회에참가한각상뎜에대하야뎜원이친절하고또한물품이우수한것을 투표하게하야 데일투표수효가만흔상뎜에게대하야는차서대로일이삼등을뎡하야상장(賞狀)과 금은동(金銀銅)『메달』을 주게되엿스며 또일이삼등에 당선된상뎜에대하야 투표한일반입장자에게도추첨으로써 당선된 사람에게는 본사에서우수한상품을 증여하리라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금번빠사대회를 참관하는 일반인사는 본지에 인쇄되어잇는 투표용지(投票用紙)나 또는입장권(入場券)뒤에백혀잇는 투표권(投票券)을리용하야 만히투표하야주기를 바라는바 이라더라

投票時注意

별항보도한권조선물산장려바사대회에대한 투표요항(投票要項)은

一、뎜원친절(店員親切)
一、물품우량(物品優良)

의두가지이나그외에투표인의주소씨명을 반드시 긔입하여야한다하며또투표할때에는상뎜의일홈을긔입치말고하긔와가튼상뎜의번호를긔입하기를바란다더라

一號興一社▲二號朝鮮絹織株式會社▲三號大明商會▲四號京城紡織株式會社▲五號丹城機業組合▲六號大昌織物會社▲七號東華商會▲八號安岳商會▲九號大吉商會▲十號同德社▲十一號和信商會▲十二號漆木器店▲十三號潤光商會▲十四號朝鮮婦人技藝社▲十五號朝鮮硝子玉組合▲十六號和平堂藥房▲十七號朝鮮賣藥會社▲十八號다리미▲十九號經濟靴▲二〇殖信商行▲二一長安屋▲二二順安食料店▲二三職物商會▲二四永善德▲二五京城女子美術學校▲二六鐵南紙物舖▲二七富國商會▲二八靑年會木工部▲二九朴德裕洋靴店▲三〇東星商會▲三一平壤商會▲三二實用靴店▲三三서울고무工社▲川四高麗蔘業社▲三五松都고무工業社

朝鮮色이濃厚한 風俗박인活動寫眞

◇회긔중매일흥행하야◇ 入場者를慰安한다

십구일오전십시부터 오후 아홉시까지 삼일동안 시내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될 권조선물산장려바사대회에대하야 주최자측에서는여흥(餘興)으로 써조선각디의풍속(風俗)을촬영한약담권척의재미잇는활동사진을 동긔간 날마다 영사하야일반 입장자에게 위안을주게되엇다더라

興一社寄贈의 燦爛한綠門

람빗과다홍빗 燈籠을달아

별항과가티 십구일부터 가장성대하게 개최될 권조선물산장려빠사대회에대하야주최자측인조선중앙긔독교 청년회에서는 더욱 회장인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입구에이미시내홍일사(興一社)에서세워노흔푸른송문(松門)우에다조선향토색(鄕土色)이가장풍부하게나타난 람빗과 다홍빗의아름다운등롱(燈籠)열두개를달어 밤에는 초人불까지 켜게되엿슴으로한층더이채를발휘케되엿다더라

◇시운뎐한 부영「빠스」◇

鐵片으로頭部亂打 一時는形勢險惡

◇열쇠를바다맘대로뒤지엇다◇ 慶山武裝靑年事件

【慶山에서 本社特派員申敬淳發信】

경상북도경산군남산면 경동(慶山郡南山面慶洞)부호김두남(金斗南)씨의 집에 오일밤 열시경에회색학생양복을닙은청년다섯명이 돌입하야 주인에게 현금 칠만원을요구하다가딸백원을 가지고 갓다함은이미작지에보도하얏거니와이제그자세한것을 실디로 됴사하야보건데그날마츰주인김씨는이웃에잇는 첩의집에 자러가고그집사랑에는집안사람오륙인이안저서 이야기를 하든중권긔 시각에널으러놀고방문을열고두명의장한(壯漢)이들어와 마츰문압해 안진최훈영(崔勳永)이라는사람을보고『네가 주인이냐?』함으로 아니라고한즉뎡히 노코털편(鐵鞭)으로함부로따리며주인 간곳을대이라함으로권긔최훈영은견디다못하야가르처주엇든바그러면 가리가자고하야 그들을고씨의첩의집에가서김씨를붓들고 돌아가자고하는데형세가비상이험악함으로 김씨는 그들에게설리어서 자긔집 사랑으로갓든바그들은 김씨를 안치고두명은마루압에서고 한명은 대문밧게서 망을보며 또두명은 각각손에무긔를든채로 김씨를핍박하며『우리는 불건너서왓는데 네가강도로알라거든 강도로알되 자금으로 칠만원을내이라』함으로김씨는 돈이업다고한즉 사만오천원가저온지가 일주일이 못되는것을 우리가알고왓는데 그게무슨말이냐고하며 단도비슷한 것과 권총비슷한것을가지고위협하면서 또한텰편으로 두부(頭部)와기타를 함부로 따리어서주인김씨와 이웃방에잇는사람들은 경겁하야 그들의 가진것이권총인지무엇인지도 자세히 보지못하고김씨는돈이 업스면차저가라고 열쇠를 내어맛기즉 삿삿이뒤저서 현금딸백원과 김씨의금시계를 가진후 남어지돈을또준비하라한후 인명은 상치아니하고각각 달아갓다더라

轟然한銃聲과 點點한爆藥破片

문밧게는폭약조각이헤저

그들은 나아가다말고 문밧게서 총소리두번을 내이고갓는바 그이튼날아츰에 나아가본즉 따이나마이트의파편(破片)이 잇섯다더라

藍色의府營빠스 廿二日부터開業

一區十錢으로每十分一臺 妙齡女車掌도異彩

서울장안에는 뎐차가 사통오달하야잇고 또인력거나『탁시ー』등의 교통긔관이 어느뎡도까지 구비하야잇스나 아즉뎐차가 아니노인 골목이만코 또인력거나『탁시ー』를 타면 갑이만히 들어서 시민의불편이 잇서오든중 얼마전에 경성부에서 부영으로 싼임금을 바드면서 승합자동차업(乘合自働車業)을 개시하기로되어 그동안준비하야 오든중 일본에 주문하얏든 자동차열대도도착되고 또차장으로쓸 녀자의『빠스、껄』과 운뎐수의채용도 권부완료 되엇슴으로 아조봄날의쏫빗이 무르녹는 오는이십이일아츰부터 영업을 개시하기로되어 위선이십일날에 시내의유지이백여명을 초대하야 시승겸 개업의자축연을 장춘단에서 거행할터이라는바 이리하야 금춘부터묘뎡의『빠스、껄』과 람색자동차가 시중의한이채를 발하리라는데 부영빠스의 요령을적으면 알에와갓다더라

◇要 領

▲自働車臺數 第一期十臺
▲一臺의乘車人員 坐席十四外가죽에달리어라는人員八名計二十二名
▲一區料金七錢(一停留場의바로압、혹은바로뒤까지 一區로看做하는便宜가有)
▲乘換 無
▲發車時間 每十分에一臺式

◇區間【停留場名】

◇第一線『랫수、아와』線

京城驛起―南大門通五丁目―南大門―太平通二丁目―府廳前―光化門通―遞信局前―總督府前―安國洞―堅志洞(鍾路小學校前)―鍾路一丁目―鍾路二丁目―塔洞公園前―鍾路三丁目―觀水橋、黃金町三丁目(若草町)―本町四丁目―大和町一丁目(憲兵司令部)

此線運轉時間 午前八時부터九時及午後四時부터五時까지

此線區間(料金徵收의區間) 京城驛‖總督府前‖大和町一丁目合三區

▲第二線 ▲高等商業學校前行線

京城驛‖南大門通五丁目‖南大門‖米倉町‖朝鮮銀行前(本町入口)‖明治町‖黃金町入口‖黃金町二丁目‖永樂町‖黃金町三丁目(若草町)‖黃金館前‖黃金町四丁目‖舟橋町‖鍾路四丁目‖黃橋‖總督府病院前‖昌慶苑前(動物園)‖經學院入口‖高等商業學校前

▲第三線 ▲京城運動場行線

京城驛‖南大門通五丁目‖南大門‖米倉町‖朝鮮銀行前(本町入口)‖明治町‖黃金町入口‖黃金町二丁目‖永樂町‖黃金町三丁目(若草町)黃金館前‖黃金町四丁目‖花園町‖京城師範學校前‖車庫前‖黃金町七丁目東四軒町‖奬忠壇‖京城運動場

此線運轉時間 午前九時부터午後四時까지

此線區間 京城驛‖黃金町三丁目‖高等商業前合三區 又京城驛‖黃金町三丁目‖運動場或奬忠壇合三區

巧妙한方法으로 貴金屬詐欺漢

여긔는리왕직이라하고 뎐화로물건을청구하야 金虎門前에서詐取

지난달십오일오정쯤한시경엇더한자의 소위인지 시내종로(鍾路)이뎡목금은세공(金銀細工)상삼광상회(三光商會)에 뎐화(電話)로이곳은리왕직(李王職)인데대비뎐하(大妃殿下)께서쓰실것이니『금비녀』『금반지』금귀개등가격일백칠십여원어치를곳가저오라한바가잇서이에주문을바든권긔삼광상회에서는곳쎄풀지테치안코주문한물건을가지고금호문(金虎門)으로들어가게되자 돌연양복을닙은 삼십세가량되어보이는 신사청년이 나타나 소리를질르며 배달인을 향하야 엇재이가티늣게가저오느냐고가장리왕직사무관처럼야단을치고물건을달라하야대비뎐하쎄뵈온후 쓰실물건인즉셜러이니 이리달라고하야가지고 들어간후 어듸로인지종적을감추어버린사건이 발생하얏다는데이금보를접한소관창덕궁경찰서(昌德宮警察署)에서는사건은이요시내각서에서는사건을절대비밀에부치고범인을엄탐중이라더라

漆夜突現한怪漢 行人을撲殺

자뎐차와축음긔강탈 兩處에殺人強盜橫行

시외 고양군 신도면삼송리(高陽郡神道面三松里)에 권총을휴대한청년두명이 나타나 세상을 놀래엿다 몹시 경독식이고 잇는이째에또 지난사일밤 아홉시경에 리천군 장호원(利川郡長湖院)부근의텰도게 도우로동군청계면 (淸溪面珍岩里)곽백오십이번디에서 농업하는 곽재양(郭在陽)이 자뎐차를타고지나갈지음에돌연히엇던괴한이나타나서 모진몽둥이로 그사람의 뒷골을 처서 박살한후에 시테는그부근 밧속에 암장하고 자뎐차와축음긔한대를 강탈도주한 근래에듬은참극이 널어낫슴으로소관서에서는범인을엄탐하든중재작십칠일오후다섯시경 비로소 그진범인을 잡어엇중 취됴중이라하며 또십칠일오후 아홉시경에 동군모가면 원두리(慕加面院頭里)에서는 송순긔(宋淳基)(二〇)가 리천시장으로부터자긔집으로돌아가든 중도에단도를가진 엇던괴한의습격을바더 소괴긴삼십사원을 강탈당한일이잇서범인을엄탐중 작십팔일 새벽에그부근에서 충북진천(鎭川)에 사는리뎡삼(李正三)(三)을테포하야방금엄중취됴하는중인테 어쨋든군부에는 박금강도 살인등참극이계속연출되어 소연한상태에싸지어잇다더라

勞、農總盟集會 不遠에一部解禁

경성안에서중앙위원집회 今月內로可否決定

조선농민 총동맹(農民總同盟)과로총동맹(勞働總同盟)은뎐래로집회가 절대로 금지되엇든바두동맹간부가 쉬지안코 해금을운동하다가 이번에 새로운면중경긔도 경찰부장을 일전에방문하고 의견을물으매 면중씨는『권조선뎍으로 두동맹의집회를해금하는것은 자긔의 권한이아니니까 말할수업스나 경성에서는중앙집행위원의 간담회가튼것은 자긔가될수잇는대로 해금식히도록생각하야금월말일안으로가부간회답을하겟다』고하얏다더라

◇春◇花◇人

夜櫻을開放한 當日의昌慶苑

꼿에醉한市民 電車로만十一萬

동안네거리는인산인해 一日間入場萬六千

세상이야 엇더케되엇든지 조선의서울에도 봄은차저 왓는지라 철몰르는 아이들은 버들가지석거서피리를불고 어엽분 아가씨비들은 세상을맛난드시 쏫향긔에취하얏다 생활에 여유잇은조선사람도 잠시왓다가는 이쏫시절을노치지 안흐랴는지 창경원야앵(昌慶苑夜櫻)이공개되엇다고너도나도 이쏫속으로 모혀들어쏫구경도하고 사람구경도 할겸아츰부터 커뎍까지 동안네거리는 인산 인해를널우어 경성시민이모다 쏫속에취한듯한 늣김이잇든재작십칠날에창경원에입장한사람수효는얼마나되든가

◇낫에는 노천삼백
◇밤에는일만일천이백·다섯명

이엇스나 도합일만륙천오백다섯명이 출동하야봄 긔운에들려 쏫속에취하얏든것이다

平日보다 二萬人增

八百圓收入增加 보통일보다

차저오는봄을 그대로보낼수업서서 쏫향긔에끌려 창경원에들어간사람의 수효는 별항과갓거니와 이날쏫에취한 조선사람의주머니는얼마나 자긔주머니에 너키는 오죽경성뎐긔회사(京城電氣會社)밧게업는 늣김이잇스니이날작십칠날아츰다섯시부터커녁열두시까지의뎐차(電車)의수입을보면오천륙백원이란거액이고 뎐차의보통날수입은 사천딸백원이라하니 이날은보통날보다 이천륙백원에대한 사람이 바이케오천륙백원을더벌은세음인의수효를보면십일만륙천명이뎐차를탄것으로이날에는보통날보다일만륙천명이더탄세음이더라

今日 全朝鮮物產獎勵바ー사大會

◇時日 四月十九日午前十時부터午後九時까지
◇場所 中央基督敎靑年會館
◇入場料 十錢 (朝鮮日報讀者는五錢)
◇主催 中央基督敎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

活動寫眞音樂其他餘興이잇슴

共產靑年會員 朝鮮內潛入說

모모단톄와련락하라고 조선내디에잠입햇다고 情報에놀라는警察

모처로부터 도달한정보에 의하면로령(露領)에잇는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리모(李某)는공산주의(共産主義)신뎐을뎐이오 조선안에잇는 모모단톄와련락을 취하기 위하야조선안에잠입하얏다는데이에대하야조선각경찰서에서는녹히권긔리、를엄탐중이라더라

上段사진은 창경원야앵

中軍閥에對한 火藥密輸事件

十七日大邱覆審서開廷

일심에서다섯명이모다 대형언도밧고불복하야

원적을 복강현 박옥군상긔뎡자신뎡(福岡縣粕屋郡箱崎町字新町)에둔 대총백우위문(大塚百右衛門)(四四)과부산부보수뎡(釜山府寶水町)일뎡목일백번디에 거주하며 부산수상 경찰서장과 모도(某道)경찰부보안과장까지 지내이고 현금교통편람(交通便覽)이라는 잡지를경영하는옥천겸오(玉川謙吾)(五三)와상해문로(上海文路)일백삼십팔호에서무역상을 하는상내중태랑(相內重太郎)(四四)과 밋부산부안본뎡일뎡목(釜山府岸本町)에거주하는 부산화약총포주식회사상무취톄역(釜山火藥銃砲株式會社 常務取締役) 좌등영길 (佐藤榮吉)(三五)과 경성부길야뎡(京城府吉野町)이뎡목 십사번디에거주하며 역시부산화약총포 주식회사상무취톄역으로 잇는 뎐소준삼(田所準三)(三九)의다섯명은총포화약취톄령위반으로작년십일월

이일에부산디방법원에서 ▲大塚百右衛門懲役一年(未決百五十日通算) ▲玉川謙吾及相內重太郎懲役十月(百二十日通算) ▲佐藤榮吉及田所準三懲役八月(百二十日通算)의판결을밧고 즉시대구복심법원에공소하야 그공판을 십칠일오전아홉시반부터 대구복심법원 데일호대법뎡에서 개뎡하얏는데 대구복심법원판사 장곡부(長谷部)부장이 심리할것이나 동부장은 부산디방법원에 잇슬때에 이사건을처리한관계로 복심에서 처리할수업서 민사부관사 오미(五味)부장이 이것을대신처리하게되어 옥명(玉名)검사의립회로 심리를시작 하얏는데 그내용은일에와가트며 이사건은 일심때부터 상세한내용이 신문지에 보도되지 아니하얏든까닭에 이번것그소식이 어둠속에살아지려 하얏든것이다

牛馬가티부리고 四個月賃金不給

◇그러타고하야하면웅긔로위협◇

橫暴한咸興窯素請負業者

[illegible]

嚴重한警護裡에 李剛遂檢局送致

制令違反의罪名으로

[illegible]

審判이不公타고 審判員에게暴行

송도고보의응원단원이

開城蹴球大會의不祥事

[illegible]

火藥은 佐世保서 拂下한것

일본해군좌세보진수부(佐世保鎭守府)에서대정십삼년중에군용화약(軍用火藥)삼십칠돈을불하(拂下)식힌일이잇섯스니원래화약은 만든지가 오래되면변성(變性)이되어스스로폭발(爆發)되는일이잇고 또는 그강력(强力)이감쇄되어군용(軍用)에는쓸수업게되는것이항례(恒例)인까닭에 해군측에서는 그다지오래되기전에 이것을 팔아버리면민간의총포화약업자들이 그것을사다가 렵용(獵用)과광산용(鑛山用)

輸出코저全力

滿洲로上海로

그러나결국몰내내어갈계획을가저

그런데화약을 부산에 갓다노코보니 출범히팔리지는 아니하는데보관료(保管料)와창고부료(倉敷料)가매일안상자에 일원오십전식이어서 그럭저럭 몃해동안에 보관료만 일만오천원이라는거액이되고 팔수는업서 그리지아니하야도 주이되는 대총은초

[illegible]

長崎서密航後 十五倍의得利

◇續行公判은十八日에

하남군사고문의손을거처서 십전에산것을일원오십전에

동이상해로가서 팔곳을주선하야노은후 전긔옥천에게 긔별하야 그대는경찰계에 경력이잇서친분잇는사람이 만흐니 수출허가(輸出許可)를내어가지고그것을보내라고 하얏슴으로 옥천은화뎐(和田)경상남도지사에게 칭원을하얏다가 되지아니함으로즉접총독부로 올라가 경무국의망해문엇고저 활동 하얏섯스나경무국에서도 전긔백십구년의오개국협료를말하고 허가치아니하야 그들의계획은 두번재실패로돌아 가버렷든것이다

그것을가지고 벽실조케 조일환(朝日丸)이라는 배한척과 선장선부(船長船夫)를고용하야가지고 대정십오년 오월십일일밤에부산을 출범하얏스니 그때그때의출범광경이야말로활동사진보다도 오히려더자미잇는 연극뎍광경이엇든것이다

그리하야중간을가다가조선해협(朝鮮海峽)의한가운대쯤가서야모도몰르는것을알고서는정작목뎍한상해를향하야한눈을돌려가지고 출범한지일헤만인 동월십칠일에 상해부두에 뎡박식이고는 이것을과 는데뻬이의(白耳義)자랑[illegible]과 밋중국하남생군사고문(河南省軍事顧問)이라고하는 소지청사랑(小池淸四郞)이라는사람에게 매『킬로그람』에일원오십전식으로 팔아버렷스니 세상에는이와가티 벼락돈을마작하는 그런례가 다시업슬것이다 사건의 경개(梗槪)는이러한데 그돈은각각 논아먹은것인바 그중에총포화약상의 관계자들은 보관료를밧고자 또커단니다가 나종에한레 희술린것이라는데 오미재판장은좌등(佐藤)부터 심리하기시작하매피고등은『화약을군용으로 수출한것이아니라』고주장하며 오후네시까지에 상내(相內)만을 남기고 전부심리를마친후 폐뎡하얏는데 속행공판은 십팔일에 할예뎡이더라(대구)

한웅물속에 九兒接踵溺死

사나이가셋, 계집애가여섯

◇…慶南泗川船津에서

[illegible]

경남사천군읍남면선진(慶南泗川郡邑南面船津)에잇는옹물에는그전부터 그다방어린 아이가종종빠저죽는일이잇는데요사이에와서는 점점그수가 늘어서불과얼마안되는 동안에 사내셋과 계집아이여섯이 뒤를니어빠저죽엇다는데 어린이들의 부모들은특히주의하기를바란다더라(사천)

安東青盟大會

경찰이돌연금지

경북안동청년동맹(慶北安東青年同盟)에서는지난십오일에대회를열기로하야 그간각지부에서는일반준비를다하야노코각지부대의원(代議員)팔십여명과다른곳손님여명까지모이엇섯는데 십사일오천열두시에 안동경찰서에서돌연동맹에서는 긴급비공식 집행위원회를열고 그대책을 의론한후또다시오후여덜시에대의원일동이모히어 의론한결과 데이차로교섭하기로하고 교섭원 세사람을선거하야 교섭하얏스나 또한실패하고 결국중지하고 할수업시 십오일에 안동공원에서여러가지로 유흥하고 동오후다섯시에해산하얏다더라(안동)

鄕校重修코저 窮民에巨額强募

칠천원이란거액을명하야 마음대로고지서를발부해

社會團體는郡守에警告

각디각군(各地各郡)에는 적지안흔 향교재산(鄕校財産)이잇고 그용도로는대개가 도사회과(道社會科)사무의 일부보조나 그러치안흐면 일본시찰등에 소비한다하야 뜻잇는 사람의불

[illegible]

渡船業競爭으로 他船을沈沒식혀

하류서영업하는삼부자가 상류영업자의배를뒤집어

안주군 안주면 북송리(安州郡安州面北松里)에잇는변긔찬(卞基贊)(五五)과 그맛아들우준(禹俊)(二七)과 그동생우상(禹祥)은그곳에잇는청천강(淸川江)에서도선업(渡船業)을하다가 얼마전에안는 신성리(新成里)로 이주하야 살면서역시 그곳에도선장을설치하고 영업을 시작하얏는데 그전자리가 경영하든장소에서 동리한진섭(韓鎭燮)이 가새로도선장을 설치하고 영업하는것을항상시긔하야오든중지난삼월이십구일밤 열시경에 전긔삼부자는 한진섭이가 새로설치한배를 업새고저 맛아들 우준과 그동생 우상으로하야금 송아지를끌고가서 강언덕에매어노흔 배를김흔곳으로 몰아너흔후 가지고갓든 삽으로흙을 파서 배우에다 무거웁게실어침몰식혓다는데그사실이란로되어소관안주서에서는 그들을인치하야엄중취됴후검사국으로압송하얏다더라(안주)

富豪亂打威脅하고 五萬圓請求한强盜

두명이모다평원서에잡히어 취됴마치고안주검사국에

[illegible]

복역하고 출옥하야현주소인평양에서『알굴리기』영업을하든자라더라(안주)

槐山芼山에 大山火

손해칠천원

지난십삼일오전열두시경괴산군상모면석유동(槐山上芼面石黝洞)에잇는산림에서불이닐어나그이는날까지탓는데발화원인은아즉알수업스나 행인의 담배불인듯하다하며손해는칠천여원에달한다더라(괴산)

光成高普紛糾

新幹會서調査

이십일에보고

평양광성고등보통학교(平壤光成高普)의분규사건는아즉까지

開城에火災

지난십륙일오전네시경개성궁뎡(開城宮町)백십팔번디리병문(李炳文)의집부엌에서장을다리다가불이닐어나 부엌한채와 그리웃집이궁뎡백십팔번디의이호한종후(韓宗後)의집과궁뎡백십칠번디리원식(李元植)의집일부를태워바리는데손해는약이백원가량이라더라(개성)

自働車庫火災

강진군(康津郡)본뎡(本町)량래익(梁來益)자동차부에서 고용하는운뎐수와 조수들이 지난십오일오후세시경에동차고에서자동차를수선중차디아래를검사하기위하야살피엇스나그날마츰비가옴으로석냥불을켜대이고보라다가그만휘발유동에불이부터차고에올마부트며 자동차전데에까지 불이부터어두어잘노이지아니함으로세시경에 진화는되엇다는데손해는약칠십여원이라더라(강진)

어린女學生 凌辱한校長判決

징역이년반

원영양공립심상소학교장편산창일(元英陽公立尋常小學校長片山昌一)(三三)이가제손으로 교육하는 어린녀학생 사오인을능욕(凌辱)하야심한자는당처의부상(負傷)까지 넘게한것으로 마츰내십판의법령에서게된사실은십삼일오전열시대구디방법원에서금천(金川)재판장이징역이년륙개월을 언도하얏는데 피고는재판장의 언도하는말소리가 떨어지는참나(刹那)에머리를숙이며뜨거운 눈물을 흘리며돌아서야수성(獸性)을그대로가진놈이보이든 그도 뉘우침이잇는것을보이더라(대구)

戰爭과戀愛 【38】

金東煥 作 安碩柱 畫

교대 (交代)

잇가칠련이가 진단서를 차지려고 이튼아츰에 화동김부호의집에 뛰어들때에 뜰판못꿀목으로부터 김장재의집을 향하야내려오는 모녀가잇섯스니 험빗고주린모양으로 보아 그가어째커녁에 룡산련병장부근의 하수도구멍에서 밤알을 건저 먹든노파와탄실인것을알니라

칠련이는 급한마음에 반대방향으로내려오는이노파들보지못하엿스나노파는그를 잇나보고서는 저런엽전한 계집아이가식컨대바름에 이집으로 웨뛰어들가하는생각에 가슴이 덜컥하엿스나 곳이나본다고 벽돌담흙이진곳에 몸을숨기고서서 동정만살피어본다

칠련이가 들어간뒤의 그집안은 한참동안취축은듯시 고요하엿다 노파는기다리다못하야 다시 쇠창살대문 압흘도로 나서려할때에 또이번에는 저쪽안동방면으로 웬묘령의녀자 하나와 부리 부리한 청년하나가헐덕어리며 달려와서는 안 마당의 인긔척을살피고잇다 노파는무슨빔이잇고나하고 다시앗가

마폭이군데군데씨어진것을보고그동안에 이러난일을 다알엇다 알어지자한ㅅ 숨을썻다 그러면은인의따님은마츰내그독수에게신성한몸을더럽히엇는가세상에도 갑가는 진주가도야지입으로 들어가고말엇는가 복수하여야할몸은 도로 복수를당하엿는가향에 넘우도 분하고원통하여서몸을화날려며문(門)쇠창살한개를비튼다 그를 빼려함이리라그나함에이번에는 돌기둥에 부터 김참재의 사괴문패들 떼여가지고 안마당으로 바람갑이가 태드리다른려한다 어케 석가래쇠테다라날듯하던복숭을오늘은사괴문패로 정복하려 함이리라

칠련이는 깜작놀라 우든울음을쇠치고 칭년의 양복자락에동동매어달니며

『에그 세복씨제발그러지마세요 모두 케가잘못이애요어서집으로 도라가요 케발그러지말고집으로가요 아아 이일을엇거면조와』

숨도미처 돌니지못하여 발을구른다 팔련이도 무서워서형이하는대로 칭년의 팔소매에

매어달니며

『선생님선생님 참으서요에그 조금만 참어주세요』

이럴때에 북칭울징수가 아츰물지게를지고 세걱세걱 소리치면서 그압흘지나다가 울고불고하는 세철무남녀를 이상한드시 한참처다보다가 도라처간다

『저뫼요사람들이 다보는데어서가요네』

『웨요이것노아요! 그래그놈을 살려둔단말이우 에익!』

『아녀요그만두세요 그런일이아녀요 어서가세요 집으로가세요 세복씨!세복씨!』

세복(世復)이라부르는 그칭년은 두처녀의말유에 마지못하야 쥐엇든문패들 부서커라고돌기둥에 동댕이를치고 대문을향하야 무수히 춤을배튼뒤에 두형데에게 쇠울니어 안동방면으로 나려간다

내려가다가 칭년은 다시홱도라커서김부호의더택을 바라보면서

『글세 웨혼자그놈의집에뛰어들엇단말이우 에익 혜롱혜놀고분하여 죽을일이야』

칠련이를 힐책한다 칠련이는 진단서이약이를 할가하다가 울걱참엇다

이러케 셋이 쇠산으행의무화주력엽흔로 사라지는것을 보고노파는 비로소 소녀를쇠울고나와서 이번에는 자긔가대담하게 김노호의 쇠창살대문을 두딸구드리민다

잇든곳에숨어햇동만살피어보앗다암아담배서너며는파을등안이나지낫스리라그럴때에불시에류리나문이철거하고열리는소가리창자 칠련이가분주히 뛰어나온다 노파는더욱 호긔심에소녀를안고 그광경을본다―― 칠련이는 팔련이가 지켜서잇는것을보고 집버서 동생의팔에 와락안기며운다

『언니 웨이러우 언니!글세』 팔련이도 청을부등켜안고 거이울드시뭇는다

『애아 팔련아 어서가자 어서이곳을 버서나자 아ー나는엇커면조와』

『글세 언니두 웨우우 누가뻐렷수 무슨일도 이러케작고우우 언니 말을하우응무슨일을당햇수』

참말잇가는 아츰밥도아니먹고온다간다는 말도 업시뛰어나가든그형이 이제치마자락이 산히쎄어지고 눈물이 비오듯하여나오는것을볼때팔련의가슴은동과의정에 떨질드시 압흣다 그래서또한번

『언니 누구에게마젓수누가뻐렷서 압혀우우언니!』

『팔련아 어서가자어서이곳을버서가자 웨이러니 어서집으로가자는데두언이응』

이미 잇처서 이모양을 보든칭년은 쥭두만장을 리교장의 시데들매고오는그칭년은칠련의얼굴에굴과옷고름이 반줌푸러진것과 처다란 사내의손톱자국이 잇는것